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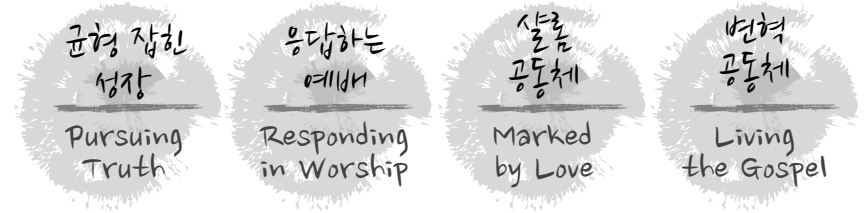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4/16	4/23	4/30	5/7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장경림, 최설아 / 김새롬, 전혜경	장경민, 박주애 / 박영미, 윤재연	박미현, 곽은영 / 심미진, 김남순	임은숙, 김윤진 / 이찬미, 황진희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MK (4월) & 레바논 (5월)			



# 하나님 나라 이야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The Revealing of Christ: He is Risen!

본문: 마가복음 15:37-16:8  
설교: 빌 독터룸 교수

## 마가복음 15장 37-47절

- (37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38절) (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  
(39절)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40절)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41절)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42절)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43절)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45절)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46절) 요셉은 삼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베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 16장 1-8절

-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절)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3절)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 (4절)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5절)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6절)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यो.  
(7절)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8절)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후, 깊은 암흑 속에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은 이 세상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순간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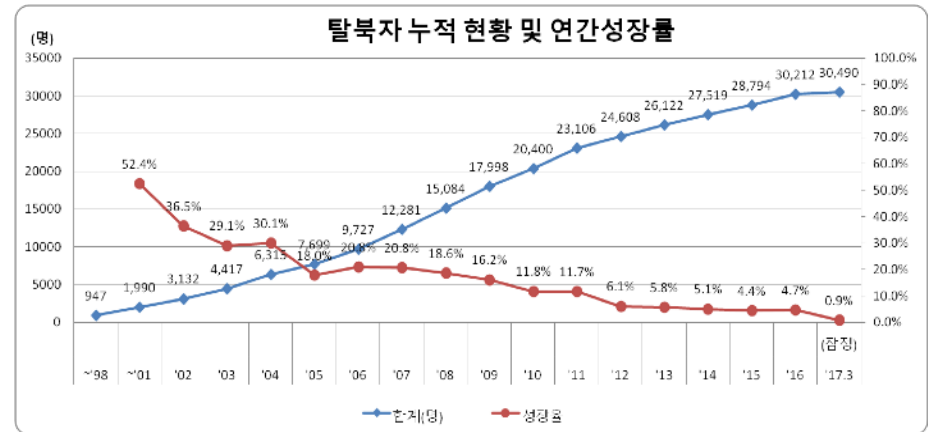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로마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두려워 말할 못할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8절에서 숙절없이 끊어집니다 (9-20절은 나중에 제3자가 추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마가가 뒷 이야기 없이 끝을 맺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여인들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과 충격을 여과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자신이 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부활과 그 의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물든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 것인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고난을 받으며 살 것인가?

### 삶으로 말씀읽기:

-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받은 통찰, 원칙, 관찰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새삼 깨달은 것이나,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보십시오.
-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생애에서의 여러 순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목장 또는 테이블 그룹에서 시간을 내서 이제까지 본 사건들을 회상해보고 그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준 교훈과 우리 삶 속에 준 도전을 생각해보십시오.
-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가 복음서를 보는 로마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소문을 염두에 두고 매우 사려깊게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마가의 이야기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로마 백부장의 증언은, 사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방식까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과정 가운데 무엇이 그에게 그런 감명을 주었습니까?
-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번 사람들에게 말씀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일이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 놀란 적이 있었습니까?
- 마가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생각만 했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목격을 하게 된 장소가 어디였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자신의 여정 가운데 이것과 유사한 점이 무엇입니까? 혼돈 속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7절에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덤에서 젊은 남자가 한 말을 듣고 여자들은 낮이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여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장 또는 테이블 그룹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으로부터 여자들을 도망쳐 나오게 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 탈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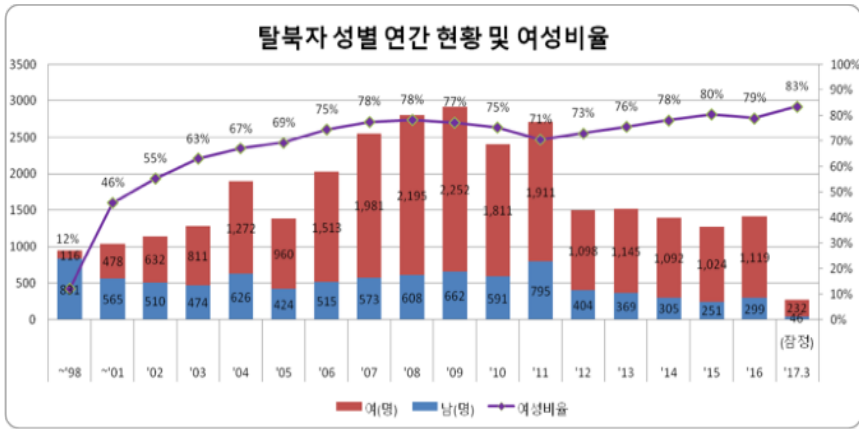
남북 분단 이래, 북한 주민이 남한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추세를 살펴보면, 2001년 52.4%로 남북 관계 개선의 효과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2011년도 이후에는 성장률 이 한 자리수대로 떨어져 최근까지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탈북자는 증가하여 통일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총 30,49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아래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 통일부

그림1. 탈북자 누적 현황 및 연간성장률

다른 한편으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탈북자 추세를 연간 입국자 및 성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작년 2016년도 탈북자 수는 총 1,41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를 잠깐 살펴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탈북자 중 여성비율이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기준으로 전체 탈북자 중 여성비율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할 때, 여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또한 수립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통일부

그림2. 탈북자 성별 연간 현황 및 여성비율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사회 일원으로 자립,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1997년 1월에 제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북한 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이나, 탈북자들의 취업지원 강화 방안 등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이러한 탈북자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웹페이지

- <https://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 <https://www.koreahana.or.kr/index.jsp>



## 북한 인권

2015년 6월 UN의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OHCHR Seoul)”가 개소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미사일 문제에 가려져 북한 주변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UN 안보리가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북한 문제의 중심이슈 중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은 국제 북한인권 NGO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국제 북한인권 NGO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NGO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 학술연구, 직접지원, 종교단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캠페인, 로비에는 국제사면위, 북한자유연합, 국경없는인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세미나 및 시위 개최와 각국 정부 의회 대상 청원서 제출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에는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인권연맹, 미북한인권위, 프리덤하우스 등이 인권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주로 중국내 탈북자 구출과 북한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북한내 종교박해 실태를 규탄하는데서 출발해 인권유린 상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미교포 홍성환 씨 등 20여명이 설립한 에녹(ENoK; Emancipate North Korean)을 예를 들면, 설립 초기부터 ‘RealPal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1:1 영어교육 및 학업 보조 등 미국내 생활적응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탈북자의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시험(SAT) 준비를 돕기 위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중국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시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제 송환된 31명 탈북자들을 위해 ‘31 for 31’ 단식운동 캠페인을 시카고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관련 자료: “국제 북한인권 NGO 현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안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 북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이상 체계가 속히 무너져 북한의 2400만 백성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잘 협력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임금의 대부분을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고, 이들이 외부 소식을 듣게 됨으로 자유통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차기 정권이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가지 안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해주시길....
-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후속조치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 가운데, 한반도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 김정은 안에 있는 여러가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갈 수 있도록....
- 한국, 미국 등 전 세계로 이주한 탈북자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 임현수 목사님이 현재 2년동안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월에는 CNN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매우 힘들었으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임목사님은 성경책 한 권만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초에는 평양에 주재한 스웨덴 대사를 만났으며, 가족과 전화 통화 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침례 간증

이예은  
(Rachael Ye-Un Lee)



안녕하세요.

침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에게 침례란 어떻게 우리가 죽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몇주전, 주일학교에서 부활절 침례에 대해 들었을때 "받고 싶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온후 아빠에게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도 "침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는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기가 조금 쑥스러웠거든요. 저는 일주일 넘게 '침례'에 대해서 생각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이 계속 생각났고 마침내 이번에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많은 사람들 앞이라는것도 더이상 쑥스럽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제 마음을 정하고 지난 4월 5일 수요일 저녁에 부모님께 침례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어요. 제 얘길 듣고 부모님께서 두번 더 물어보셨고 전 "yes"로 대답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왜 "침례"를 받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과 함께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Jesus died on the cross because He loved us so much and I love him! I want to be a follower of God. So getting baptized is like getting back at Him."

이것이 제가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침례"를 받기로 결정한 이유고 부활절에 "침례"를 받은것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제가 태어나고 엄마가 저를 교회에 데려간 첫날이 부활주일 이였대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활절이 더 특별하고 특히 이번 부활절은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In the future, I might become a missionary.) 선교를 어떤 말로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I don't know what can I pick the word instead of missionary) 제가 커서 의사가 될지, 선생님이 될 지, 글 쓰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people who need to hear about God)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 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싶어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와 이곳 빌리지 포틀랜드 오레곤 교회에(in Holy Church like Village , Portland, Oregon) 대해서도 말해 주고 싶어요.

# 빌리지 알리판

## @ 한인부

### 1. 2017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17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한 기대 가운데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0-3세 아이들을 위한 Nursery가 있고, 4세에서 5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녁 집회 시간동안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계획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사: 송병주 목사 (LA 선한청지기교회)
- 장소: 빌리지 채플
- 일시: 5월 22-24일 (월-수), 7pm

### 2. 2017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각각의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변화의 삶 @ Bridge Room // 구약의 숲 @ Willamette B & C
- 어린이 돌봄: 135번방 (돌봄담당: 최정훈 형제 & 최설아 자매)

### 3. 목자기도회 (4/29)

빌리지 한인부 목자기도회가 있습니다.

- 일시: 4월 29일 (토), 7pm
- 장소: Willamette A

### 4. 무릎선교사 (4/22)

무릎선교사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4월 22일 (토) 7am
- 장소: Fellowship Hall West

## @ 지역 사회

### 1. 오레곤 뱀엘장로교회 집회 (4/28-30)

오레곤 뱀엘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 일시: 4월 28일 (금) 7:30pm,  
29일 (토) 6am & 7:30pm  
30일 (주일) 주일예배 & 2pm
- 주제: “능력있는 삶을 사십시오” (고전4:20)
- 강사: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 @ 온 교회

###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부활절에 빌리지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부활의 놀라움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지속적인 가정 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희생양이 되고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안전과 화해와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 여성부 하이킹 산책 (Hikes & Rambles, 4/29(토), 10am @ Noble Woods Park)

- 올해 첫 하이킹 산책이 4월 29일 시작됩니다. 2마일 정도의 잘 포장된 산책길로 리더이신 Mary Roberts와 Century Blvd parking lot에서 만나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Mary(vcesmusicteacher@gmail.com)께 미리 연락바랍니다.
- 일시: 4월 29일 (토) @ 10am
  - 장소: Noble Woods Park (475 SE Century Blvd, Hillsboro)

### 3.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 (5/23-6/27 (6주), 매주 화요일, 10-11:30am)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Poppy Smith를 강사로 모시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물음의 대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비: \$15, 아이 돌봄 서비스: 없음)

### 4. 2017년 중고등부 수양회 (Theophilus, 7/1-4 @ Multnomah University)

-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Theophilus가 올해는 여름, 7월 1-4일 포틀랜드에서 열립니다. 4월 9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할인됩니다. 리더로 섬겨주실 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 비용: \$129 (2/10-4/9 등록시), \$169 (4/10-6/11 등록시)
  - 등록: theophilus.info
  - 문의: Dan Son, dans@vbconline.org

### 5. 중등부 여름 캠프 (7/9(주일)-7/15(토) @ Black Lake Bible Camp)

올 가을 6-8학년이 될 중등부 아이들을 위한 캠프로, 수상 스포츠, 여러 게임과 함께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 middleschool.vbconline.org)

### 6. 고등부 여름 CIY “Move” 컨퍼런스 (7/31(월)-8/4(금) @ OSU)

올 가을 9-12학년이 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Christ In Youth’s “Move” 컨퍼런스가 5일간 개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의 귀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고등부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 7. 공동체 텃밭 (Village Community Garden)

공동체 텃밭 신청을 4월 17일(월)부터 받습니다. 비용은 \$20이며, 원하시는 분들은 주 중 front office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insilk@vbconline.org)

### 8. 어린이 도서관 도서 기증 안내

어린이 도서관에서 모든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책을 구합니다. 기증해 주실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232번방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